

머리말

“조이스 에피퍼니의 오행”

김길중

지난 6월 5일 오후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학술대회는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다. 피부에 와 닿기로는 대학이 자리한 경관 좋은 신록의 산기슭과 한적한 주말 교정의 빛과 그늘 속 어딘가에 은근히 깃들어있는 남녘 바다의 예감이 특별하였다. 그 때문인지 경남 소재의 대학에서 학회가 열리기는 이것이 처음이라는 작은 우연도 참석자들은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학회는 대학 측의 배려 하에 한마미래관의 완만하고 쾌적한 계단식 강당에서 약 세 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진행되었다. 그 진행의 대강을 옮겨 이번호의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좋은 날씨와 좋은 경관에 참석자들의 화기가 어우러져 감화됨이 있었는지 발표와 토론이 두루 유쾌한 의욕에 가득 찼고 유익했다. 진행 전반도 매우 원만했다. 원래 지정 토론자로 위촉된 김상효, 김경숙, 오길영, 김석의 네 분 중 사정이 생겨 참석지 못한 분이 다른 분으로 대체한 정도 이상의 곡절은 일체 없었다. 첫 발표는 최석무 교수였다. 최 교수는 평소 문학교육에 관심이 깊은 분이다. 이번 발표도 『더블린 사람들』중 「하숙집」에 나타나는 애매성의 문제를 어떻게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특히 폴리의 진실에 초점을 두어 발표했다. 논문은 이미 시행된 실제수업의 경험에 토대한 것이었다. 발표자에 따르면, 수업 받은 학생들은 왕성한 관심을 쏟으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했다. 추후 전반부 2인 발표 후의 토론에서 폴리에 대한 진실 공방이 꽤 뜨거웠는데, 가르치는 입장의 관심도 자리를 바꾸면 학생의 의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이영심 교수 차례였다. 『율리시스』의 「키르케」장에 나타난 블룸의 여성화 문제에 관한 발표였다. 이 교수는 마침 월레독회 현재의 진도인 「키르케」의 진행을 주관하고 있다. 언제나 지성으로 준비하고 때로는 생각을 웅변으로 토로

하는 소쇄한 풍모를 보였는데, 이 날도 그랬다. 블루이 She가 되어 He가 된 벨라(벨로)와 대결하는 절정의 순간은 인용된 텍스트 자체에서 발표자의 열성적 육성이 혼재한 착각을 주었다. 성정체성의 해체 판타지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상론하였고 역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발표자는 「키르케」장의 역동성에 청중도 동참할 것을 권하는 듯 보였다. 지정토론 김경숙 교수의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과거에도 우리는 발표와 지정토론의 역할 속에 조우하였는데, 전생애 서로 무슨 관계였다고 보는가?”

세 번째 발표자는 김철수 교수였다. 그의 주제는 『더블린 사람들』중 「작은 구름」의 주인공 쉐들러의 소인(小人)기질이였다. 그는 논의에서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군자와 소인에 관한 생각을 풍부히 거론하며 쉐들러의 소인스러움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성경지식이 남다른데, 놀랍게도 동양고전에 관한 관심 또한 꾸준하다. 그의 주제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해 쉐들러를 소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온당한가 하는 근본 의문을 제시하는 질문도 있었다. 정당한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쉐들러가 깰러허를 만나는 저녁의 그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소인스럽다고 규정했다 해서 쉐들러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토착의 소양에 비추어 조이스를 읽는 의욕은 드문 만큼 가상한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윤희환 교수는 근래 지속적으로 『더블린 사람들』 단편을 꼼꼼히 다시 읽고 논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오늘의 주제는 「진흙」 다시 읽기였다. 약간의 독자반응이론과 약간의 이저(Wolfgang Iser)를 바탕으로 로티(Richard Rorty)의 우발 개념(Contingency)을 응용한 다시 읽기였다. 윤 교수는 논문의 행간에서 이와 같은 원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곧, 주인공 마리아는 새로운 상황의 고비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상황의 우발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얼마큼 있는가, 마리아를 독자에게 제시하는 서술자는 믿을 수 있는 목소리인가. 그는 「진흙」의 특별한 활기, 독자친화적인 활기의 비밀이 이들 질문 속에 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우발성에 대한 로티의 유명한 개념이 통상의 뜻과 얼마큼의 격차를 가지는지, 로티가 아직 풍문일 뿐 입문되지 못한 나는 잘 가능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통상의 뜻으로 우발성 개념이 조이스 텍스트에 특별히 친화적인 것은 분명할 것 같다. 어쨌든 토론의 상당 부분은 우발성 자체에 관한 질의응답에 할애된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 철학적인 ‘우연성’보다 문학적인 ‘우발성’이 나아 보였는데 확신은 없다. 토론에서는 그냥 ‘컨틴전시’로 통하였고 아무도 번역어를 구하지

않았다.) 윤 교수의 발표는 당일 유일한 영문이었다.

이상의 네 학술발표 이외에도 그 날 실은 발제 하나가 더 있었다. 내 자신이 학술 발표에 앞서 이른바 특별강연을 감당하는 분수 밖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제목은 다소 엉뚱하였지만 ‘조이스 에피퍼니의 오행’이었다. 그런데 발표장에 와서 보니, 학회는 발표논문집과 현수막에서 나의 이 제목을 이번 학술행사의 공식 주제로 삼고 있었다. 영광이 지나쳐 내심 몹시 송구스러웠다. 아마 그런 풍수에서 나는 “조이스 에피퍼니의 오행”이라는 같은 제목을 여기 다시 내걸고 경남대 조이스학회 경과의 대강을 소개하는 머리말을 목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 제목에 따옴표를 찍은 것은 기술적으로 학회장(場)으로부터 같은 문구를 재인용하였기 때문인데, 자기인용이지만 재인용 표시가 ‘영광스러움과 송구스러움’의 감회의 뜻을 함께 실어 나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제목의 핵심어는 ‘에피퍼니’와 ‘오행’이다. 먼저 에피퍼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이스 자신이 깊은 애정을 가진 심미적 개념으로 스스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지만, 나는 여기서 ‘깨우침’ 혹은 ‘주목할 만한 요소나 국면 혹은 성취’ 정도의 임의로 조정된 뜻을 취했다. ‘조이스 에피퍼니’는 뜻이 엇갈린 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중 구문이다. 하나는 숨은 주어 ‘내’(독자)가 목적어 ‘조이스’ 읽고 일정한 ‘에피퍼니’에 이르는 어법이고, 다른 하나는 ‘조이스’가 주격이 되어 ‘그가 실현한 에피퍼니 같은 국면 혹은 성취’의 뜻으로 가는 어법이다. 스티븐의 ‘어머니의 사랑’이란 라틴어 어구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주격의 ‘어머니’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목적격의 ‘어머니’도 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두 뜻을 다 취해서 서술어 ‘오행’(五行)으로 가는 주어로 삼았다. 오행은 물론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동양 전래의 오행이고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장 등도 인용 언급하였지만, 본격적인 동양 오행론 자체는 나의 분수와 관심 밖이다. 오히려 ‘다닐행’의 자원(字源)으로 거슬러 올라가 환원하고 해체하여 인도나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四大)와도 대등하게 체계 아닌 시(詩)적 비전 속에 소통하는 어떤 원형적이요 원리적인 이미지, 그런 작용(agency), 기능(function), 성질(nature), 요소(element)를 ‘오행’을 빌어 상징하였을 뿐이다. 문화에 갇힌 고정 의미의 체계를 좀 과감히 털어내고 독서자의 분방한 자유 속에서 유전된 개념을 써보는 것이다.

예컨대, 『더블린 사람들』의 「은총」의 끝은 커닝햄 등 4인이 드디어 톰 커넌을

피정으로 안내해서 중앙에 앉히고 전체 5인이 이른바 ‘quincunx’의 문양을 이루는 우스운 장면이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수난의 문양이지만, 멀리는 의식 없이 실현된 오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섯 사람은 이야기 공간 안에서 시민 구성의 오행이고 커넌을 에워싼 사원소의 작용이다. 많이들 걸어 다니(行)는 사회. 오인(五人)의 행차, 곧 오인행의 의미가 깊어지면 우습지만 오행의 구도 속에 아니 들 수 없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첫 장면에 나타나는 아기 스티븐의 오감(五感) 구색은 다른 의미에서 갖춘 오행으로 본다. 소설이 진행하면서 참회하는 스티븐이 오감을 학대(mortification)하는데 이것은 역리의 오행이다.

나는 이야기의 서두를 나의 조이스 독서의 오행(stations, stages, steps)이란 이름으로 다섯 일화를 꼽아 회상했다. 1960년대였다. 대학 2학년 때 수강한 영국소설 교재가 펄킨 판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었는데, 표지 사진이 지금도 애정이 깊은 스포츠 트워드 모자(Irish cap)를 쓴 청년 작가의 모습이었다. 책은 걸 인상과 달리 너무 어려워 절반은 거의 포기지경으로 갔지만, 이 사진을 쳐다보는 것으로 얼마간 읽는 것이 대행되는 듯했다. 이렇게 이런저런 세 단계의 국면을 거친 다음에, 네 번째 독서 행려(行旅)의 단계가 오는데 그것은 현재 학회가 주관하여 공동으로 수행중인 월레 『율리시스』 독회이다. 이전의 셋과 사뭇 다른 국면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조이스 부재의 단계를 상정한 것이고 설명이 복잡하다. 다만 한 사례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대신하였다. 나에게 우스개미의 자작시 한편이 있는데, 퍼닝(punning)에 의존한 칠언절구이고 내용인즉 이러하다. 길가다가 나무 그늘에 든다. 고개 돌려 온 길을 다시 보니 행인이 하나 오고 있다. 보자 하니 종이구나 길가는 종이구나, 운운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야 만사의 자기회귀를 말하는 스티븐의 햄릿 론에 육박한 셈이 됐지만, 우연으로 그랬다. 핵심은 언외(言外)에 있었고 어렵고 아리송하기도 하여 언급 자체를 생략했다.

힌두교와 불교의 공(空)관념에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오온(五蘊, five skandhas)이라 하는데, 그 중 행은 마음이 대경(對境)에 대해 의지(意志)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한다. 대략 이런 뜻의 조이스 오행이 있는데, 곧 기억하는 조이스(예, so many allusions), 언어와 세계의 벼랑을 보는 조이스(예, Mrs Hill's mad deathbed utterance), 내성하는 조이스(예, interior monologues), 연회하는 조이스(예, his dramatic principles), 묵상하는 조이스(예, his meditation)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이스 글쓰기의 국면에 오행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섞이고 변형되는 것이 보통이고 전형적인 예를 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예시하자면 「Telemachus」는 나무(木)와 쇠(金), 「Gas from a Burner」는 불(火), 「Eumaeus」는 흙(土), 「Et Tu, Healy」는 쇠(金), 「Penelope」는 물(水)로 본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이 오행의 유형에 부합할 수 있다. 보일런은 火, 스티븐은 金, 블룸은 木, 『율리시스』의 몰리는 土, 『피네간의 경야』의 몰리 곧 A. L. P.는 水로 본다. 金星의 스티븐이 木星의 물푸레나무 단장(ashplant)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金星의 날카로움을 보완하기도 하고 보다 원숙한 아버지 격인 木星의 블룸을 지향하고 연결하는 지표도 되기 때문이다.

생각 나뉘므로 터무니없는 가상(假相)의 희롱이지만 조이스 자신의 아집과 아상으로 시작한 연후에 제상(諸相)의 환(幻)과 가성(假性)을 볼 수 있었다. 두서없으나 이것으로 특별했던 금년 봄 학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고 머리말에 대신한다.

삼가 학회의 진정한 발전을 기원한다.